

노인의 민간 돌봄에 대한 연구

—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을 중심으로

고 성 희

(전북의대 간호학과 교수)

목 차

1. 머리말
 2. 연구방법
 3. 연구지의 소개
 4. 노인의 돌봄담당자
 5. 노인 돌봄행위
 6. 노인 돌봄의 원리
 7. 맺음말
- 참고문헌
 - 영문초록

1. 머리말

간호란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Leininger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돌봄을 전문직의 가치이자 간호의 중심영역으로서, 간호학을 다른 건강분야와 구분 짓는 독특한 특성으로 간주해 왔다. 전문직 간호는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대상자의 경험에 더불어 참여하면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돌봄 잠재력을 보다 전문적인 방향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나이가 들에 따라 육체적, 심리적인 노화로 허약해진 노인은 자연 자녀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들로부터 돌봄과 보살

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제성장과 의료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증가되고 노인인구의 비율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인구의 노령화 현상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는 복합적인 노인문제를 유발시킨다.

사회적 변화는 특히 세대간에 문화적 괴리를 초래하기 마련인데, 간호사는 그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노인의 입장에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각 문화에 맞는 노인간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유지·증진함에 있어서 보다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단계에 놓여 있으며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세계를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간호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상자는 항상 병원에만 있는 사람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살다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병원에 왔다가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갈 사람이다. 여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돌봄현상을 파악하고 돌봄원리를 추론해 보는 것은 다양한 간호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서는 문화간호의 원형을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의 일환이다.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 접근을 지향하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의 기본 관점과 방법론은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통해 간호의 질을 높이려는 간호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지를 이용하여 중국 연변지역에

*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학술장학재단의 지원에 의한 것임.

거주하는 조선족(*연구자주: '韓人'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지만 이를 한글로 표기시 '漢人 또는 漢族'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낱말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고에서는 중국 연변의 현지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의 노인 돌봄현상,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1)누가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가? 2)그들이 행한 주요 돌봄행위는 무엇인가? 3)그 돌봄행위에서 찾아질 수 있는 문화적 원리는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중국은 1949년 공산화된 이래 새로운 사회체제와 경제구조속에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변화를 겪었으나,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변지역 조선족의 경우 민족 고유의 문화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제시된 바 있다(김 1982, 1984:전 1989:한과 권 1993). 그러나 한중 국교 수립(1992년 8월 24일) 이전에 수행된 이 연구들은 현지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각종 출판물, 기행문, 논문, 중국주재 한국인과의 서신왕래, 중국 방문시 청취한 자료에 의존하였거나 현지조사를 한 경우일지라도 단기간의 방문을 통하여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시도된 것들이며, 아직 간호학적인 관점으로 접근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중국내 조선족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민간 돌봄에 대한 것을 규명하는 작업은 문화간호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자는 한국 전라북도 지역의 한 마을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한국인의 민간 돌봄을 문화기술지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간호학과 문화인류학이 엮물리는 학제적 팀의 일원으로서, '돌봄'을 주제로 한 일련의 연구(고 등 1990; 최 등 1992)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자치주를 배경으로 하여 시행된 본 연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하위문화집단에 있어서 돌봄의 속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지조사 지역은 중국 연변의 '조양천'을 선정하였으며, 연구 제보자는 60세 이상으로 과거 3대 이상의 직계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부모를 모셨으며, 노인 돌봄에 대한 참여관찰을 위하여

현재도 가능하면 3대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노인으로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승낙한 노인을 제보자로 하였다. 제보자 중 여자는 12인이었고, 남자 노인은 4인이었다. 제보자 16인 중 13인은 조부 시절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에서 출생하였고, 나머지 3사람은 3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이주해온 이민 1세대와 2세대들이다. 제보자의 대다수가 조부 혹은 부친대에 가족 단위로 극심한 생활고로 이주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정확한 이주시기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보자의 진술과 그들의 연령으로 미루어 보면 이주시기는 70년 내지 90년전인 1900년대초 혹은 1920년대초로 추정된다. 제보자의 고향은 함경남도 1인, 평안북도 1인, 황해도 1인 이외에는 모두가 함경북도 출신이다. 여자 제보자들은 훈춘, 동불사, 화룡, 장신, 용두산, 안도, 만인경, 연길 등지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시집을 왔으며, 남자의 경우는 결혼 후 이 지역에 옮겨와 살게 되었다. 소학교(당시 보통학교로, 일본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일본어 등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친일교육기관이었음) 출신 2인이 있을 뿐 대다수가 가난으로 인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제보자들은 '한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제보자라 할지라도 자습하여 '조선글'을 쓰고 읽을 줄 안다. 제보자들은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주거 형태는 4대직계가족 1가구, 3대직계가족 7가구, 2대직계가족 1가구, 노부부가족 2가구, 독거가족 3가구이었다.

주제보자는 66세된 여자 노인으로서 수년간 노인 조직인 노인독보조(老人讀報組)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 개개인 및 마을 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과 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본 연구자에게 제보자를 추천해 주고 직접 안내해주며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였다.

본 연구의 현지조사 기간은 1993년 8월 24일부터 1994년 5월 20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현지조사를 통한 제보자와의 면접 및 참여관찰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기타 연구지에 대한 자료는 노인협회장 겸 노인독보조 회장, 조양천진장(우리의 읍장에 해당), 병원장 및 기타 마을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수

집하였다. 이 마을에서의 숙식은 부련회(婦聯會, 즉 부녀연합회) 회장의 집과 노인독보조 활동실에서 하였다. 연변 조선어는 한국어와는 다소 다르기 때문에 제보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주 제보자와 부련회장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radley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지의 소개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모여 사는 다민족국가로서, 9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한족 이외에, 나머지는 소수민족이다. 조선족은 55개의 소수민족 중 하나로서, 12억이 넘는 중국 인구의 0.02%를 차지하는 200 여만 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97%가 동북 3성인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에 거주하고 있는데,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현, 시는 모두 연변지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1952년 연변은 조선족자치구(朝鮮族自治區)가 되었고 그때 인구는 조선족이 62%이었으나 1955년 연변 조선족자치주(朝鮮族自治州)로 격하되면서 중국 정부의 조선족 분산정책에 의해 점차 조선족의 인구비율이 낮아져 91년말 통계에 의하면 43%로 감소되었다(김 1991).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조선족의 집거구역으로 조선족이 지방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소속성인 길림성의 통제를 받으며 동시에 중앙 정부의 최고통제기관인 중국 공산당의 명령계통의 하부에 놓여 있어(연변조선족자치주개발 집필소조 1984), 공산주의이념과 중국이라는 국가체계의 범위안에서 자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김 1984).

조양천은 이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재지인 연길시와 약 15.1Km 떨어져 있으며, 장도선(장춘-도문), 조개선(조양천-개산탄), 조화선(조양천-화룡) 등 세계 철도선이 교차하는 주요 지점이다.

조양천의 지명유래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조선족의 경우 양천 허씨가 주류를 이루는 마을인데서 조선족의 '조'자를 따서 '조양천'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족은 아침에 해가 비치는 지역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다. 실제 유래야 어찌되었든 지명의 유래에서도 조선족은 동족의식, 혈연의식 등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가구수는 609호이며, 인구는 1,931명인데 남자 904명, 여자 1,027명이다. 이들은 11개 촌민소조에 나눠 살고 있으며, 원래는 조선족만 살던 마을이었는데 최근 들어 한족, 만족들이 이사해 들어와 한족 17명, 만족 7명이 살고 있고, 그 외에는 전 촌민이 모두 조선족이다. 이 중 노인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50세 이상되는 인구는 217명으로 전 인구의 1/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협회 회원은 원칙적으로는 만 60세가 되면 가입을 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51세부터 가입을 시키고 있다.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춘 이유는 50대 회원이 생산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 노인들의 노동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회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촌민들은 소학교에서는 '소선대원(小先隊員)'에,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공청단(共靑團, 공산주의 청년단)'에, 30~35세의 남자는 '중년협회', 동 연령의 여자는 '부련회', 만 50세 이상의 남녀는 '노인협회'에 가입한다. '공산당원'은 소선대원, 공청단 활동을 거친 자로 교육과 심사 과정을 거쳐 뽑히는데, 이 지역에는 총 56명의 당원이 있다. 촌 당지부 서기 겸 촌민위원회 주임, 공청단 총지 서기, 노인협회장, 중년협회장, 부련회장, 공산당원 등이 주축이 되어 마을을 이끌어간다.

원래 이 마을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호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1983년에 호구에 따라 남녀노소의 구분없이 동등하게 배분된 토지를 개인이 경영하고 그 수입을 개인이 소유하도록 한 호도거리제도가 채택되었다. 이 지역도 예외없이 이 제도가 시행되어 생산량이 전보다 증가됨에 따라 수입도 좋아진 편이다. 농사 이외에도 부업으로 돼지, 닭, 오리 등을 기르고 있으나 이로는 높은 자녀교육비 등 가계비를 충당할 수 없어 최근 2,3년전부터는 젊은층일수록 농사를 짓지 않고 다양한 직종을 찾아 가정 경제 수익을 올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 당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40%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농토를 내어 놓음으로써 이를 다른 사람이 맡아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은 촌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조양공업회사, 이 위원회 산하의 병원, 음식점, 상점, 양식 기름 가공회사, 인쇄회사, 벽돌회사, 러시아

변경 무역회사, 과수원, 양식장 등에서 일하며, 직장의 국가 배치의 비율이 낮아지고 직업의 자유선택권이 증대되자 자력으로 복장업, 미용업, 가공업, 양식재배업, 운수업, 상점 등을 경영하기도 하고, 기타 농업 이외의 직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제품을 소련이나 북한으로 가지고 가서 팔고 오는 장사를 하기도 하고, 소련 또는 한국 등지로 노무하러 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겨우 최근 2, 3년전부터 의식(衣食)이 해결된 정도이며, 일인당 연평균 수입은 1,342원(화폐 비율이 거의 100:1이므로, 한화로는 13만 원 정도에 해당함)이다.

이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로는 1953년도 조양천 공사 위생소에서 1964년에 승격한 병원, 집체 및 개체 위생소, 치과, 약국, 소학교와 초중학교(한국의 중학교에 해당함), 교회 등이 있다. 기타 이 지역 특산물로는 사과배(맛은 배와 흡사하며 모양은 사과와 배를 접붙여 놓은 것 같은 유일하게 연변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특산물임), 벼, 영지 등을 꼽을 수 있다.

4. 노인의 돌봄담당자

1) 가족

본 연구지역에서 노인의 가장 좋은 돌봄담당자는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돌봄담당자인 배우자를 사별한 후 재혼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오늘날에 와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홀로된 노인 중에 결혼을 하는 예가 늘고 있다. 본 연구지역의 경우 대개가 종산이 없고, 최근 들어 토장이 금지되고 화장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묘도 없는 데다, 기제사의 풍습도 사라져 사후돌봄이 필요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문 또한 크게 중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다 현실지향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으로 사고가 전환되면서 행동양식의 변화까지 동반되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노인과 아들 내외간에는 세대차가 존재한다. 이 세대차는 연령의 차이에서 비롯되어진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치 혹은 의식구조의 차이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 세대인 이민 1, 2세대는 조선땅에서 살았던 부모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세대인데 반해

아들내외는 사회주의체제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하는 신세대로서 부모세대와는 가치관과 의식구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세대차가 노인 돌봄에 영향을 미쳐 아들내외는 노인에게 흡족한 돌봄담당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노인들이 재혼을 하는 것은 좀더 편안한 돌봄담당자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배우자 이외에 노인에게 주요한 돌봄담당자로는 아들 내외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지역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만큼 장남이 아닌 기타 아들 중에서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형제가 여럿인 경우 보통 막내아들이 부모를 모신다. 대개는 자식을 결혼시키는 순으로 즉 장남부터 분가시키므로 막내아들만 남게 되고, 막내아들은 결혼후에도 부모와 같이 살게 되기가 쉽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요인들이 이에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남을 결혼시켰을 때는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들내외와 한 집에 동거하기에는 주거 공간이 불편하고 좁은 것도 있겠고, 나이가 많지 않은 만큼 자녀에 대한 의존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돌봄담당자인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 특별히 아들의 돌봄이 요구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막내아들의 경우에는 나이도 더 들었고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도 많아 주거문제의 불편성이 감소되었음은 물론 노화의 고독에 따른 의존성이 증가되어 막내아들 내외를 분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부모보다 부모가 더 일찍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어떤 사유로 조선족 집거구역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살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손자 내외가 조부모를 모시고 돌본다. 손자 내외는 노인에게 흡족한 돌봄담당자가 되지 못하였다. 이는 아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모를 모시지 못할 때 손자 내외가 아들 내외의 역할을 대신하는 데서도 기인하지만, 아들만큼 노인 돌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들이 없으면 첩을 들여 아들을 낳아 서자의 돌봄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전혀 또는 전남편 소생의 아들도 노인의 돌봄담당자가 된다. 그러나 그 의무의 정도는 친자에 비하여 약하고 상대적이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부모와 근접하여 살고 있으며 자식-부모간의 유대관계가 좋을 수록 친자 이상의 좋은 돌봄담당자가 되기도 하였다. 자식이 없거나 딸만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사별후 재혼을 하지 않고 자손이 없을 때에는 본 연구지역에서도 양자를 들었다. 중국이나 한국은 이성(異姓)을 가진 남아를 입양하지 못하고, 동성(同姓)을 가진 남아 중에서 승계자를 선택하는 것(Arigo 1956)이 통례이지만, 이곳에서는 형제, 친척의 범주가 넓지 않기 때문에 조카보다는 친족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타인 혹은 혈통을 모르는 자, 즉 이성양자를 더 많이 하였다. 양자 입양은 대를 잇는 목적보다는 노후돌봄의 의미가 더 크다. 양자는 상황에 따라 친자와 똑같이 노인 돌봄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노인과 친자보다 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한다.

딸이 돌봄담당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지역 노인들은 대다수가 아들이 있을 경우 아들이 아닌 딸과 동거하면서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상례적이지 않고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한다. 딸은 혈연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모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 또한 적은데, 이는 딸을 '출가의외인'으로 철저히 배제하는 가부장적인 관념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딸만 있는 경우는 양자를 들이는 대신 데릴사위를 들여 딸 내외의 돌봄을 받기도 한다. 노인과 딸과는 혈연관계에 있지만, 사위는 혈연관계에 있는 친부모가 생존해 있을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적인 성격의 돌봄관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지역에서는 딸이 아닌 아들이 노인 돌봄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한 제보자는 "자식 없으면 집이 없는 거지."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제보자의 전통관념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진술에서 '자식'은 곧 '집'을 의미한다. '나'는 자식을 낳음으로써 집을 존속시키므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집이 존속되지 않고 망하며, 나는 자식을 연계로 조상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므로 집의 존속은 '나'의 정체성의 유지 및 확대를 의미한다. 이것은 최(1982)가 '집'이란 말에는 가계존속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세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라고 규정한 바와도 통한다. 따라서 제보자들은 아직도 나와 자식과 집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는 전통

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자식 곧 아들, 아들 곧 장남의 관념에서도 탈피하기 어렵도록 한다. 제보자중 절반은 장남과 나머지 절반은 중간이나 막내아들과 동거하고 있지만, 독거 노인 가운데에서 나중에 혼자 살 수 없게 될 때는 장남에게 호구를 옮겨가겠다고 하는 노인이 대다수인 것에서도 이 관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친척

본 연구지역에서 친가, 외가, 시가 또는 처가를 포함한 친척이 노인의 돌봄담당자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변 조선족 사회내에 씨족이나 종족조직 같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친가, 외가, 처가의 친인척과 처족의 구분이 일상생활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하여, 길흉사에 이들 모두가 아무런 구분없이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참석한다는 연구결과(김 1982; 전 1989; 한과 권 1993)와 일치된다. 이는 개별 가족 단위로 이주·정착 하였기 때문에 친척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 이민사회에서 친척의 관념은 상호협동과 부조를 위해 필요한 조직이긴 하지만(한과 권 1993) 문화혁명 당시 친척을 봉건사회의 유물로서 금기시했던 영향이 잔재해 있어 친척조직의 형성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는 부모를 축으로 친척간에 왕래가 있지만, 부모 사망후 친척간에도 왕래 회수가 줄어들게 되어 자연히 멀어지게 된다. 또한 오늘날에 와서는 직장생활로 시간을 내기가 여의치 않는데다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여건상 왕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돌봄담당자로서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더욱 희미해졌다고 본다. 이런 연유로 친척집단은 노인을 돌보는데 있어서 다소 불안정된 조직일 수밖에 없다.

3) 지역집단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집단에는 노인독보조, 노인 동년배 집단, 제하자 집단이 있다.

노인독보조. 본 연구지역에는 노인협회가 있고, 그 산하에 노인독보조가 있다. 초기에는 전쟁시 남편이나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난후 소식을 듣기가 어려웠기 때

문에 소수의 근가족들이 신문 독보 등을 통해 전방소식을 전해 듣고 전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서 노인독보조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노인층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독보만 하던 것에서 사회, 경제, 문화, 오락 활동 등 범위를 넓혔고, 85년도에 노인협회가 생기자 그 산하의 활동조직이 되었다. 현재 1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남자가 1/3이고 여자는 2/3이다. 회원들은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인 활동실을 가지고 있으며, 한 달에 세 번 대개 오후 6시 30분-7시에서 9시경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주요 활동은 신문 독보, 정부 차원에서 교육·지시 사항, 모임을 견설하게 하기 위한 토론, 생산 및 오락 활동 등이다. 이중 생산활동은 독보조의 운영경비를 자체 해결하도록 정부에서 불하한 수전(논) 1헥타아르, 한전(밭) 3헥타아르에 벼농사를 짓고 밭에는 콩, 호박, 팥, 무우, 배추, 고구마, 사탕무우, 해바라기 등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곡식을 재배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가까이 살고 있는, 유사한 연령층의 남녀 노인들로 구성된 이 공동체 집단은 이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소속감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고독을 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및 친척들이 제공할 수 없는 돌봄을 제공하는 좋은 돌봄조직이다.

노인 동년배 집단. 본 연구지역의 노인들은 노인독보조 회원인 것과는 무관하게 지역내에서 동년배끼리 이루는 소집단을 형성하여 노인독보조와 같은 대집단을 통하여 충족되지 못하는 요구를 해결하고 있다. 노인들은 대개 유사한 연령층이고, 생각과 취미가 유사한 사람끼리 집단을 이룬다. 이들은 대개 건강상태가 비슷하며, 지역적으로 근접하여 살고 있다. 간혹 지역적인 거리가 예외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별, 연령, 건강상태, 취미가 아주 유사한 경우이다. 그러나 대개의 노인들은 근력의 저하로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왕래하기가 용이한 같은 소조내의 노인과 집단을 이룬다. 노인 동년배 집단은 노인독보조와는 달리 동성끼리만 집단이 형성된다. 남녀유별 사상이 잔존해 있어 아무래도 동성의 경우에 더욱 친밀하고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듯하다. 그래서 여자 노인들로 이루어진 동년배 집단이 지배적인데, 집단의 크기는

적게는 3명에서부터 시작하여 7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이같은 소집단 모임이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생존해 있는 남자노인의 수가 적은데다가 연령차가 커서 유사한 연령층으로 집단을 이루기가 어려우며 집단을 이룬다 할지라도 생각과 흥미가 각양각색이라 모임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지역에서 이 노인 동년배로 구성된 소집단은 노인과 동거하지는 않지만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정을 나누고 고독을 덜며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노인의 돌봄집단으로 나타났다.

제하자 집단. 이 마을에 거주하는 청·장년 및 의료요원 등 노인보다는 제하자인 일반 주민들도 드물기는 하지만 노인의 돌봄에 관여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노인 돌봄은 가족, 친척, 지역 집단 등 다양한 집단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담당 집단에 대한 노인이 가지는 기대는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지역에서 노인의 돌봄담당자는 가족집단을 제외하고는 노인 동년배 집단 및 노인독보조와 같은 지역집단이 친척집단에 비해 더 가깝고 다양한 돌봄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족조직이 약할 수록 동년배조직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김 1983)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누가 가까이 살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느냐가 제도적인 규범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한과 권 1993)도 한 요인일 것이다.

5. 노인 돌봄행위

가족집단, 친척집단 및 지역집단은 노인에 대하여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였다. 이들 집단을 통하여 이루어진 노인 돌봄에 대해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의 노인 돌봄행위

배우자 및 자손으로 이루어진 가족집단은 노인의 주변 가까이에서 여러가지로 시중을 들면서 몸을 수발하고, 기력을 보호하고 몸을 보전하도록 하는 보호와 같은 돌봄행위 그리고 노인으로서 위치를 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회 및 여가 활동을 조력하고 정보·물질·마

음을 나눔으로써 노인의 견해·생각·행동 등을 뒷받침하여 지지하고, 노인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노인의 생일·명절·집안의 대사를 잊지 않고 챙기며 그의 의중을 헤아리는 정을 베푸는 돌봄행위를 담당한다.

수발, 가족은 노인과 물리적으로 가까이하고, 편안한 부양환경을 만들며, 병구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노인을 수발한다. 노인과 물리적으로 가까이하는 돌봄행위에는 동거하기, 방문하기, 함께하기 등이 있다. 노인들이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돌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가족이 노인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었다. 특히 자식들이 분가하여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을 대다수 노인은 좋은 돌봄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배우자나 자손은 노인과 동거하면서 노인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돌본다. 건강한 노인은 혼자 독거를 할 수도 있지만 노인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자손이 모서다가 동거한다. 부모를 모시고 같이 살지 못하는 자손들은 자주 방문한다. 같은 동네에 사는 아들 내외 및 손자녀는 거의 매일 방문하지만, 타 지역에 사는 자손의 경우 대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다가 지역간을 왕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부모의 생일이나 큰 명절에만 방문하였다. 배우자와 아들 내외는 생계를 위해 농사일을 하거나 또는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감에 하루 종일 매달려 있기 때문에 노인과 함께 하는 돌봄은 주로 손자나 손녀의 몫으로 나타났다. 손자녀는 노인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친구가 되어 줌으로써 고독을 덜어준다. 그리고 손자녀는 한 상에서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자며, 노인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노인의 몸이 편치 않을 때는 원행을 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편안한 부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들 내외는 생계비를 마련하고, 원할 경우 배우자를 얻어 주며, 특히 며느리의 경우에는 가사일을 능숙히 해야 한다.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아들들은 부모를 모시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양식, 옷, 신발 등 의식(衣食)을 해결해준다. 본 연구지역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옷을 사드리거나 용돈 정도를 부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으로는 부모를 크게 만족시키지 못하며 부모의 생계를 해결하는 일이 필요한 돌봄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생활비는 정기적으로 자식이 부담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명절마다 생활비조로 돈을 가져오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는데, 자식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부모의 생계를 돌보고 있었다. 과거에는 아들이 죽거나 군대에 가고 없을 경우 며느리가 대신 생계를 떠맡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갖은 고생을 다하였다. 또한 가사일을 능숙히 하는 것도 부모를 부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며느리로서 가사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할 때는 부모를 언짢게 하며, 어떤 경우에는 체벌까지 당하기도 하였다. 사별한 노인을 위하여 새로이 배우자를 얻어 주는 것 또한 노인에게 바람직한 부양환경을 만들어주는 좋은 돌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손은 노인이 병에 걸렸을 때 입원을 시키고 병구완을 하거나,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며, 효험있는 약을 구입해 드리는 '병구완하기'의 돌봄행위를 담당하였다. 제보자들은 대다수가 노화에 따른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허리가 아프고 기력이 없다거나 심장이 좋지 않다거나 두통, 신경통, 관절염, 요추디스크, 고혈압 등이 있다고 호소하였으며, 배우자나 자손들은 좋다는 약을 구해다 주었고 증상이 심해지면 통원치료를 받도록 병원에 모시고 간다.

보호, 배우자와 자손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간식을 만들어 주며, 건강식품을 마련해 먹도록 하고, 편리한 가재도구를 마련해주고, 가사일을 분담하는 등의 '기력을 보호하기', 입을 옷을 만들어 주고 세탁을 해주며 목욕하는데 동반하는 등 '몸의 청결 도모하기',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복을 마련해주고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하기' 등의 돌봄행위를 담당하였다.

본 연구지역에서 의식(衣食)이 해결된 것이 2, 3년 전이므로 최근에 와서는 다소 달라졌지만 노인의 식성에 맞추어 음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공양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다수가 그저 형편껏 식사를 대접하였는데, 특히 돌봄담당자인 며느리는 끼니를 거르면서도 노인에게 갖은 수단을 다하여 하루 세끼를 챙겨 드리고, 노인의 치아상태에 맞추어 밥을 죽처럼 질게 하여 대접함으로써 노인이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돌본다. 또한 본 연구지역은 겨울에 평균 영하 26도까지 내려가 몹시 추운데다가 노인들은 신진대사 저하에 따른 체열 생산의 저하로 추위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온을 위하여 의복을

마련해 드리는 외에 방을 따뜻하게 해드린다. 방들은 한 개의 아궁이에서 난방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인의 경우에는 옷방보다는 대개 부엌 아궁이와 가까운 정주관에서 취침을 하도록 배려함으로써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도록 한다.

존중. 노인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돌봄행위로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공손히 말하는 등의 '공대하기', 순종하고, 선의의 거짓말하는 등의 '순종하기', 언행을 조심하며, 간섭하지 않는 등의 '삼가기', 건강을 도모하여 아프지 않도록 하고 부모 앞서 죽지 않으며, 조상을 모시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하는 등의 '자식된 도리 지키기' 등이 있었다. 이중 자식된 도리 지키기는 자손이 스스로의 행실을 도리에 맞게 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행위라면, 공대하기, 순종하기, 삼가기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손이 존중을 표시하는 행위이다. "먹는 건 무슨 아들네들이 좋은게 있으며 오라지. 이런 건 어떤 땐 제한한다. 많이 못 먹소. 이것도 좋지만 그저 손군(손자)네, 아들네 앓지 않고 이 사회에 나가서도 보통 자기 생활하고 남에게 말 듣는게 오지 않으면 좋단말야. 손군이 앓거나 아들이 앓거나 어디가 싹하거나 저그 가정에 싹하거나 이렇게 부닥치면 영 며칠은 꼴이 이렇지야. 영 불쾌하지."라는 제보자의 진술에 의거해 볼 때, 자식들이 자식된 바 도리를 다하는 것이 노인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기본적인 돌봄임을 알 수 있다.

지지. 아들 또는 손자는 노인의 감각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안경이나 보청기 등을 마련해준다. 노인은 화투놀이를 하거나, 노인독보조에서 칠판에 적혀있는 가사를 보거나 베끼기도 하면서 노래를 배울 때,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들을 때 감퇴된 시각과 청각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기구인 안경이나 보청기가 필요하다. 감각기능 보조기구는 가격보다는 노인의 기능감퇴에 적절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마련해야 하며 그럴 때 대인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설에 손자녀들이 세배할 때 세배돈을 주거나, 아픈 동료 노인을 방문할 때 먹을 것을 사가거나, 화투놀이할 때 내기돈으로 사용하는 등 다소의 돈이 필요하므로, 특정한 수입원이 없는 노인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될 돌봄행위였다. 그리고 배우자

및 며느리나 가까이에 살고 있는 딸들은 노인의 사회 및 여가 활동을 적극 보조함으로써 노인이 고독을 덜고 유쾌하게 지내도록 배려하였다.

정. 배우자나 자손들은 노인에게 다정하게 대함으로써 정을 표현한다. 배우자와는 싸우지 않고 항상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아끼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을 나눈다. 아들은 말보다는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을 표현한다. 그러나 같이 사는 손자녀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정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아매, 아매'하고 부르며 다정하게 대하고 학교생활 등 여러가지 얘기를 하며 가슴에 손을 넣기도 하고 가까이 눕는데 노인들은 이런 손자녀의 다정한 행위를 무척 좋아한다.

또한 가족이 노인에게 정을 표현하는 돌봄으로는 명절 및 노인의 생일, 환갑을 챙기는 것이 포함되었다. 노인의 생일이나 환갑에는 의복을 해드리거나 상을 차리며, 설·추석·노인절·부녀절 등 명절에도 역시 옷을 선물하거나 한복을 해드린다.

아들 내외는 부모가 말하기에 앞서 부모의 의중을 미루어 짐작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노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노인되니까 고독하지. 아무래도 내 새끼지만 조금만 것에도 놔(노여움)이 나지."라는 제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노인을 노엽게 하므로 노인을 노엽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돌봄이다.

2) 친척의 노인 돌봄행위

친척집단은 동거하거나 방문하는 등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고, 생계를 도와 부양환경을 조성하며, 병에 걸렸을 때 병구완하는 등 수발, 노인의 생일, 명절 및 집안의 대사를 챙기는 정과 같은 돌봄행위를 한다.

수발. 친척이 경제적으로 곤란하면 적극 조력을 하였다. 집에 데려다가 같이 동거하면서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친척의 자녀를 공부시키고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계를 돌봐주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병으로 인하여 가축을 거느릴 능력이 없는 친척 역시 먹여 살렸으며, 어떤 제보자는 자신이 살던 집을 내주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제보자들은 모두 이복에 살다가

이주하였기로 아직도 이북에 남아 있는 친척들이 있으며 양식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 경우 그 친척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현재에도 보내주고 있다. 친척 가운데 환자가 생겼으나 경제적인 여건상 그 집안에서 환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형편이 닿는 친척이 데려다가 병이 나을 때까지 수발하는 등 어려운 처지를 진심으로 돌보았다.

정. 회갑연, 결혼식, 장례식 등 집안의 대사에 참석하여 조력한다. 본 연구지역에서는 회갑연, 장례식을 치를 때 음식상을 차려 가는 관습이 있었는데 2년전부터는 간소화되어 금전으로 대신한다. 애경사에는 금전적인 조력도 하지만 손님 접대를 위한 식사 준비 등 일을 통한 조력도 한다.

친척의 돌봄으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와병중이나 치료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친척과 함께 살면서 생계를 책임졌다는 것이 특기할만한 행위이었지만, 이 돌봄행위는 최근에 들어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주 초기보다 생활 형편이 나아진 탓도 있겠지만, 친척이 가까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지역에 사는 경우도 드물고 가까이 왕래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경제사회활동에 바쁘다 보니 친척간의 유대도 희미해져 수발과 관련된 돌봄행위는 생계를 책임졌던 데서 의식(衣食)을 보조하는 정도로 축소되고, 애경사에 해당하는 집안의 대사에만 참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지역집단의 노인 돌봄행위

지역집단의 노인 돌봄은 집단의 성격에 따라 돌봄행위 및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집단별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 노인독보조의 노인 돌봄

노인독보조는 노인의 사회 및 여가 활동을 조력하고 정보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지지, 애경사를 챙겨 정을 표현하는 돌봄행위를 한다.

지지. 노인독보조는 생산 및 사회활동, 오락활동 등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보조하고 여가활동을 격려한다. 노인들은 농사일과 같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정기모임이 있거나 생산활동을 하는 날에는 취사활

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활동은 물론 가사활동에서 역할을 잃고 느끼는 소외감을 보상받는다. 또한 독보조에서는 매달 한번씩 노래하고 춤추며 노는 오락활동, 1년에 최소 1번의 소풍 또는 유람, 노인절과 같은 명절 및 연말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여 노인 회원들이 고독감을 잊고 즐기도록 지시한다. 이때 노인들은 특별한 성(性)의 구별이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술이나 음료, 음식을 먹으며 노래하고 춤추며 흥겨워 한다. 그 가운데 특히 노인절 잔치는 문화적비전향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세시의례로 간주되고 있는데(전 1989), 우리 고유의 전통의례가 아니고 중국 사회속에서 살면서 조선족의 집거구역인 동북 3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제정한 명절이다. 연변텔레비전방송을 통해서도 방영이 될 정도로 연변지역의 곳곳에서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장수 노인, 효부 등을 표창하고 음식을 풍성히 마련하여 노인에게 대접하며 노인들의 장기자랑을 포함한 춤 노래 잔치가 벌어진다. 노인들에게 노인절은 여느 명절과는 달리 노인이 되었지만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흥겹게 즐기면서 고독을 덜 수 있는 놀이마당이 열리는 날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노인들은 한 달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학습 시간을 통하여 당의 정책이나 방침을 전달받으며, 신문 독보를 통해서도 사회 제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당의 정책이나 방침은 독보조의 회장이 전달하며, 신문의 독보는 회원중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는 최근의 신문 기사중 흥미있는 것, 예를 들어 농사, 기후, 노인의 건강관리와 장수에 관한 정보 및 주요 뉴스(김대통령의 중국 방문, 사회의 미담, 불효로 생긴 사건 등)를 읽어주고 쉽게 설명해주며 질문에 대답도 한다. 노인들에게 이같이 정보를 나누는 것은 유용하고도 현실감을 지닐 수 있는 좋은 돌봄이 되고 있다.

노인들은 독보조 정기모임이 있거나 생산활동을 하는 날에 만나서 여러가지 얘기를 나눈다. 노인 본인과 관련된 얘기로는 신체기능 감퇴나 질병, 그 치료법, 집안 얘기가 주를 이루고, 그밖에 지역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노망(이곳에서는 '오망'이라고 함)난 노인, 병으로 앓고 있는 노인, 자식이 돌보지 않는 노인, 자식 없는 노부부, 재혼한 노인, 동네 소식 등이 화제에 오르며,

연구자에게 한국에 관한 질문도 많이 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들은 관심있는 부문에 대해 얘기하면서 기분을 풀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비교도 하면서 위안을 받기도 한다.

정. 회원 집안의 결혼식, 생일, 장례식, 돌잔치, 회갑연 등 애경사에 참여하고 도움을 제공한다. 경사에는 초대를 받은 경우에만 참석하지만 애사에는 초대가 없어도 모두 참여한다. 최근에 와서는 대개 금전으로 부조하는데, 장례식 때에는 금전(보통 10원 이상)이외에 술을 가져가기도 하며 상가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곳의 관례이므로 동네에서 세 끼 식사와 간식까지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일을 통한 조력도 한다.

(2) 노인 동년배 집단의 노인 돌봄

동년배로 이루어진 소집단은 노인의 여가활동을 격려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음식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지지, 애경사를 챙기고 노인의 건강상태를 염려하는 정에 속하는 돌봄행위를 한다.

지지. 노인들은 함께 모여 동년배 소집단을 이루고 놀기를 좋아한다. 노인들이 모이는 곳은 대개 아들네와는 별도로 독거를 하고 있는 노인의 집이다. 그 외 마땅히 모임 곳이 없는 노인들은 노인독보조 활동실을 이용한다. 노인들이 모여 노는 철은 주로 겨울철이었다. 여름철에는 아들 내외가 농사일로 분주하므로 노인은 기력이 있는 만큼 농사일을 돕거나 아니면 집안 살림을 대신 맡아서 하고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동료와 어울려 화투놀이, 노래 배우기 또는 부르기, 춤 등 오락활동을 하며 무료하지 않게 시간을 보낸다. 노인들이 가장 즐기는 것은 화투놀이였는데, 노인 중 가끔 틀리게 하면 알려주고, 판돈의 계산을 잘못하면 알려주고, 따먹을 패가 없을 때는 다음번 순서인 노인의 패를 보고는 따먹을 수 있는 패를 내는 등 모여 노는 노인들이 재미가 있도록 마음을 쓰면서 여가활동을 격려한다. 또한 항상 같이 모여 놀던 노인중 한 사람이 나오지 않자 방문하여 놀이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노인은 동료가 집에 놀러 오면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돌아갈 때 과일, 사탕 등 음식을 나누어 싸주며, 아플 때 병에 효험있는 약이나 치료방법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나누어주며, 가정사적인 일이 있을 때 의논의 상대가 되어 주고 위로하는 등 나눔의 돌봄행위를 하였다. 노인독보조에서의 다소 공개적인 성향의 대화와 비교할 때 화제의 종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노인 자신에 관련된 보다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얘기를 빈번하게 나누었다. 그 외 동년배 집단 성원 중에는 노인독보조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으므로 독보조에서 들은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정. 노인의 생일과 회갑, 자손의 결혼과 돌잔치, 그 외 이웃의 상사 등을 챙겨서 참석하는 것도 노인에게 정을 표현하는 돌봄행위이었다. 애사인 상사(喪事)에는 청하지 않아도 소식을 알게 되면 참여하지만, 경사에는 초대를 받지 않으면 대개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애경사를 챙기는 돌봄 이외에 앓고 거동을 못하는 노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동료노인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방문안을 한다. 또한 동년배 노인이 아프면 사망할 것을 걱정하는 등 염려하는 정에 근거한 돌봄행위도 있었다.

(3) 제하자 집단의 노인 돌봄

제하자 집단은 노인의 기력을 보호하고, 노인 앞에서 언행을 삼가고 노인이라고 소외시키지 않고 존중하며, 사회활동을 보조하고 여가활동을 격려하는 지지에 해당하는 돌봄을 제공한다.

보호. 마을의 청장년은 다소 마을에서 멀리까지 나들이를 하는 노인을 노상에서 만나면 물고 가던 마차에 타도록 배려하는 등 노인의 기력을 보호하는 돌봄행위를 하였다.

존중. 일반 청장년의 경우에는 노인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존대어를 사용하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등 언행을 삼가고, 병원 등의 기관에 치료차 갔을 때 청장년 의사가 노인에게도 다른 연령층의 사람에게 하듯이 관심을 보이고 노인병으로만 규정짓지 말고 성의있는 태도로 치료에 임하는 등 노인이라고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 노인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돌봄이다.

지지. 동네에 사는 한 장년남자는 관절염으로 걷기가 불편한 노인에게 지팡이를 만들어주었다. 이처럼 신체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주는 것은 골절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거동하기 용이하게 하여 노인

의 기동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 및 여가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연구자가 화투놀이할 때 내기돈으로 쓰이는 2전 짜리 지폐를 모아 가져다 드리자 무척 기뻐하였으며, 이처럼 여가활동을 격려하는 행위는 노인에게 생활의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노인의 돌봄담당자들은 몸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돌봄으로 수발과 보호 행위를 하였고,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돌봄과 관련하여 존중, 지지, 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제공하였다.

노인이 되면 노화에 따른 몸과 마음의 변화가 초래된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몸의 다각적인 기능의 감퇴와 함께 생활능력의 저하가 따르는 노인을 돌봄집단이 물리적으로 가까이하고 살면서, 생계비를 조달하거나 능숙하게 가사일을 담당하여 좋은 부양환경을 조성하며, 노화에 따른 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병구완을 하는 등의 <수발>은 노인의 건강·신체적 및 경제적 측면의 요구를 해결하는 돌봄이다. 소화흡수기능이 저하되고 혀와 구강 점막의 노화로 미각이 변화되는데다가 치아상태의 불량으로 균형있는 영양섭취가 요구되는 노인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몸을 보하는 건강식품을 챙겨주고, 노화에 의해 체력이 상실된 노인에게 신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도록 편리한 가재도구를 마련해주거나 가사일을 분담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기력을 보호한다거나, 감염에 대한 저항력 저하로 감염 예방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 노인의 몸을 청결히 하고,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는 등 <보호>의 행위를 하는 것도 역시 노인의 신체적 건강요구를 배려한 돌봄이 된다.

Birren이 인간은 3가지 차원인 생리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차원으로 노화한다고 주장한바 있듯이, 몸의 기능 감퇴는 전반적인 심리적 감퇴 및 노인의 지위와 사회적 가치에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일의 수행능력, 감각의 예민성, 자아개념, 성격,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등에도 변화가 일어난다(전과 최 1985). 따라서 노인은 몸의 기능 감퇴와 함께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구를 가질 수 있다. 몸의 기능 감퇴에 따른 다른 사람들의 수발이나 보호 행위 자체가 또한 노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무력감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은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구를 지닌 존재가 된다. 노인을 공대하고 순

중하며 언행을 삼가고 자식된 도리를 하는 <존중>, 대화·접촉·물질(선물) 등을 통해 다정하게 대하며 노인의 생일·명절·집안의 대사를 챙기고 병문안하고 마음을 헤아려 노엽지 않게 하는 것은 <정>을 표현하는 돌봄행위로 노인의 심리·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등 활동을 조력하고 정보·물질·위로를 나누는 <지지>의 돌봄행위는 노인의 심리·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인관계와 활동을 통하여 사회와의 접촉을 도모하고 관심과 생활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여 고독과 소외감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지역의 노인 돌봄행위는 몸의 편안함과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돌봄이 주를 이루었는데, 어쨌든 노인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과 지역집단 등 다양한 조직망을 통하여 상보적으로 돌보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6. 노인 돌봄의 원리

1) 집단성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바 노인은 집단으로 돌보아진다. 즉 배우자, 자손 등의 가족, 친척, 지역집단이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였다. 집단은 가족, 친척 등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지역집단처럼 지연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행위의 유형 및 그 의미는 친밀성의 정도, 돌봄담당자의 근접성, 접촉의 빈도에 따라 달랐다.

가족은 노인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몸과 마음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는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한다. 가족은 친밀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접촉할 수 있는 지리적 거리가 짧거나 자주 접촉할 수록 더욱 긴밀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혈연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관계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진다.

친척의 경우 당내친에 국한되지 않고 외가, 시가, 처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돌봄담당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친척은 몸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돌봄과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돌봄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가족집단에 비하여 행위유형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가족과 같이 일차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친척은 지리적 거리가 멀고 관계가 덜 친밀할 수록 접촉의 빈도도 적으며, 따라서 노인에게 제공하는 돌봄의 정도도 더 낮았으나 가족과 마찬가지로 혈연으로 얽혀 있으므로 다소 비자발적인 돌봄이 이루어진다.

지역집단도 또한 노인 돌봄에 있어서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지역은 첫 정착시부터 농사를 주로 하는 농촌마을인데가 언어와 문화풍속이 같은 동족끼리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살아 왔기 때문에 지역집단은 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돌봄조직이다. 더욱이 친척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친척의 관계망이 좁으며 친척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교통여건상 왕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멀리 살고 있는 친척보다는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지역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부터 돌봄을 받기가 용이하여 자연히 돌봄유형이 더욱 다양하다. 지역집단은 주로 마음의 안정과 관련된 돌봄을 담당한다. 지역집단은 혈연이 아닌 지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친밀한 관계이면서 자주 접촉할 수록 자발적이고 상호 부양적 형태의 돌봄을 제공한다. 지역집단의 경우에 특히 연령은 친밀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는데, 동년배일수록 더욱 허물없이 친밀하게 교류하며 상호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편안한 돌봄담당자이다. 생각과 취미가 유사하고 건강상태가 비슷하며 동성일수록 친밀하게 자주 왕래하며 돌봄을 주고받는다. 또한 노인은 기동성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할 지라도 같은 소조에 속하여 지리적인 왕래거리가 짧아 빈번히 접촉할 수 있는 노인끼리 더욱 좋은 돌봄담당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 지역집단은 혈연관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돌봄의 의무가 없으므로 노인들도 가족에 대해서만큼 큰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돌봄도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집단의 돌봄을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노인 돌봄에 있어서 집단마다 돌봄행위의 유형이나 의미가 다르다 할지라도, 한 집안의 대사(예를 들어 노인의 회갑연 등)일수록 가족, 친척, 지역사람의 구분없이 돌봄을 제공하는 등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었다. 이처럼 노인 돌봄은 가족, 친척 등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지역집단처럼 지연으로 연결된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 개인은 가족의 일원, 친척의 일원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며, 그의 행위는 집단적 유대속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호혜성

호혜성이란 여기서는 김(1992)의 정의에 의거하여 주는 행위, 받는 행위 그리고 갚는 행위를 동시에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 순수 우리말인 품앗이와 같은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 호혜성은 통상적으로는 균형적 호혜성을 전제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불균형적 성격을 띠 수도 있다.

호혜성은 노인에게 대한 자손들의 돌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호혜적인 돌봄은 내리사랑이다. 본 연구지역에서 내리사랑은 정신적인 면 이외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식을 경제적으로 보다 윤택하게 살도록 해주기 위한 노인들의 경제적인 행위에의 참여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특기할만한 현상이었다. 자식의 가계가 넉넉하지 못할 경우 노인은 부모로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있고 이런 자식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이 경제적으로 여유있을 때 다소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노후 의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작용하는 듯하다. 노인이 된 부모를 자식이 돌보는 것은 이러한 내리사랑을 받은데 대한 갚는 행위로서 호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어떻게든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어야지. 자꾸 쓰다듬어 주면 사랑이 올라온단 말야. 이렇게 되주어야 되지. 그저 억지로 해서는 바빠서(힘들어서) 안돼."라는 제보자의 진술에도 반영되어 있다.

친척집단의 돌봄에서도 호혜성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돌봄을 받았던 친척들은 그 은혜를 갚는다. 돌봄을 받은 당사자가 죽음으로써 직접 갚지 못할 경우 자식에게 유언하여 반드시 대신 은혜를 갚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은혜 갚음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명절이나 노인의 생일때 아무리 원거리일지라도 반드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다거나 하는 비물질적인 형태도 있었는데 반드시 등가적인 갚음이 이루어지고 있지

는 않았다. 그러나 집안의 대사의 부조나 도움은 비교적 등가적인 값음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지역의 경우 친척집단은 촌수보다는 과거 또는 현재에 얼마나 많은 돌봄을 받았는가, 얼마나 자주 친밀하게 내왕을 하는가에 따라 호혜성에 기반을 둔 돌봄 정도가 달랐다.

지역집단의 경우에도 음식을 대접받거나 물건을 받으면 항상 적절한 때 적절한 형태로 값았다. 경사에는 요청이 있을 때만 방문하고 부조나 도움을 제공하며, 부조나 도움을 받은 만큼 추후 가능한 등가적인 형태로 값았다. 그러나 애사의 경우에는 친밀한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친밀하지 않다 할지라도 요청하진 요청하지 않건간에 성의껏 타산적이지 않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집단의 성원중 각별히 친밀한 사이에서는 호혜성이 느슨하게 작용하였다. 그밖에 본 연구지역에서는 호혜성을 가진 '향두'와 같은 치상계 등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전통적으로 조선족 공동체의 주요 생활양식과 의식을 대표하는 각종 마을 협동조직이나 상징도 봉건적 잔재 또는 지방민족주의적 유물로 간주되어 모두 폐기되었기 때문이다(한과 권 1993).

노인 돌봄집단에 작용하는 이같은 호혜성의 원리는 친밀성의 정도에 따라 균형적 또는 불균형적인 성격을 띤다. 친밀한 관계가 아닐 수록 직접적이고 등가적인 값음이 행해졌다. 인간은 집단내에서 한 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은 예의가 없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집안사람 및 마을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며 소외된다. 노인들은 지역의 대·소집단 활동시에 만나게 되면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자손을 계속 화제에 올려 얘기를 하므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도 그 한 예이다. 호혜성의 원리를 무시한 행위는 노인 당사자에게는 서운함을 넘어서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 이같은 감정은 돌봄담당자에 대한 노인의 기대가 클 수록 더욱 분명하게 표현된다.

3) 조화성

노인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친척, 지역 집단은 개인의 의사를 수렴시켜 집단의 일원으로서 조화를 모색하면서 공존할 때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다.

부모는 내리사랑을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친정부모에게 하듯이 하고 시부모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우할 때 부모 자식간에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진다.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않고 고루 사랑하고 다소 섭섭한 일이 있다 해도 참고 이해하며, 훈육을 할 경우 자식의 성격에 맞춰 알맞게 할 때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한편 며느리는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으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족내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시부모를 돌보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행위이다. 노인들은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며느리를 못마땅해하는데, 시부모와 며느리간의 관계는 아들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므로 이에 대해 아들이 적절히 중재하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휘둘러서 부부가 조화된 형태로 일치된 돌봄행위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부부간에 다투지 않고 형제자매간에 우애있게 지내는 것을 통하여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도 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돌봄이다. 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자식된 도리를 지켜 가족성원간에 화목을 도모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한다.

친척집단의 경우에도 돌봄관계에 조화성이 반영되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 또는 집안의 대사에는 상호 조력을 함으로써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친척간의 관계망을 유지시킨다. 지역집단에서 노인 돌봄은 좋은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지역의 경우 상호왕래하기가 어려운 친척집단보다는 지역집단이 노인 돌봄에 있어서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바, 지역집단간의 관계형성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동년배 조직인 노인독보조나 동년배끼리 이루어진 소집단내에서도 쓸데없이 타인의 일에 참견을 하지 않고 노인으로서 위신을 잘 지키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좋은 돌봄을 주고받게 된다. 한편 제하자 집단은 노인 앞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노인과의 관계에서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가족, 친척, 지역 집단간의 노인 돌봄에는 조화성이 내재해 있으며,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화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

에는 위계성의 원리가 약하게만 남아 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해 순종해야 하며 제하자는 노인에게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등 다소의 예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행위상으로 표현되는 바는 거의 없었다. 부모와 자식사이에 권위주의적 관계가 거의 소멸된 이유를 한과 권(1993)은 부모 세대를 고발하고 공격하도록 한 문화혁명의 영향, 농촌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호구에 따라 똑같이 농토를 분배한 제도로 인한 가부장적 권위의 경제적 기초 상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지역의 경우 이민 1, 2세대인 제보자들은 특정 하위문화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합심하여 타국땅에서 기반을 잡는데 온갖 노력을 하여야했기에 본인들이 위계질서를 지키며 자손들에게도 교육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영향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지역에서도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으며 농민 호구를 가진 청장년들은 특히 농사를 짓는 대신 동일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더 나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거리를 찾고자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배금주의와 물질주의에 가치가 지향되는 것도 예외와 범절을 중시하지 않도록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상기 다양한 요인들이 위계성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지역에서 노인 돌봄에 있어서 나타난 원리는 집단성, 호혜성, 조화성이었다. 즉 노인 돌봄은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호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집단내의 성원들간에 조화로운 관계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졌다. 이 세 원리는 제 각각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작용할 때 더 좋은 돌봄이 제공된다.

7. 맺음말

본고는 중국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노인 돌봄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3년 8월 24일부터 1994년 5월 20일에 걸쳐 문화기술자를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노인의 돌봄담당자는 가족, 친

척, 지역집단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족 돌봄담당자는 배우자와 친자, 손자, 전처 또는 전남편의 아들, 양자, 딸 등이었다. 그중 노인에게 가장 좋은 돌봄담당자는 배우자이다. 그러나 대개 배우자를 사별하고 한쪽 노인만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 자식이 노인의 실질적인 주 돌봄담당자가 되었다. 노인에게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아들이 중요한 돌봄담당자이고 딸은 그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할 뿐이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돌봄을 받는 것은 무척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가부장적인 관념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은 친척에 의해서도 돌봄을 받고 있었다. 친가, 외가, 처가의 친인척과 처족이 구분없이 노인 돌봄에 참여한다. 이는 친척이 많지 않은데다가 친척 조직이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할 때 가능한 사람은 모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척집단은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안정된 조직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집단도 노인의 돌봄을 담당하였다. 노인독보조는 지역적으로 가까이 살고 있는 유사한 연령층의 노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집단으로, 노인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활발한 돌봄조직이었다. 노인 동년배로 이루어진 소집단 역시 노인 돌봄에 다양하게 관여하며 가족이나 노인독보조 등에서 충족될 수 없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상호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좋은 돌봄조직이었으며, 기타 청장년 등 제하자 집단도 드물기는 하지만 노인 돌봄에 관여하고 있었다.

노인의 돌봄행위로는 가족집단의 경우 노인의 신변 가까이에서 여러가지로 시중을 들면서 몸을 <수발>하고, 기력을 보호하고 몸을 보전하도록 하는 <보호>와 같은 돌봄행위 그리고 노인으로서 위치를 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회 및 여가 활동을 조력하고 정보·물질·마음을 나눔으로써 노인의 견해, 생각, 행동 등을 뒷받침하여 <지지>하고, 노인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잊지 않고 관심을 쏟으며 그의 의중을 헤아리는 <정>을 베푸는 돌봄행위를 담당한다. 친척집단은 동거하거나 방문하는 등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고, 생계를 도와 부양환경을 조성하며, 병에 걸렸을 때 병구완하는 등 <수발>, 노인의 생일, 명절 및 집안의 대사를 챙기는 <정>과 같은 돌봄행위를 한다. 지역집단은 노인의 사회활동을 보

조하고 여가활동을 격려하는 등 활동을 조력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음식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지지>, 노인의 생일과 명절을 챙기고 애경사를 챙기며 병문안하고, 노인의 건강을 염려하는 <정>, 노인에게 언행을 삼가고 노인이라고 소외시키지 않는 <존중>, 기타 노인의 기력을 보호하는 <보호>의 돌봄행위를 하였다. 이 중 <수발>과 <보호>의 범주는 몸의 편안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이며, <존중> <지지> <정>의 범주는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된 돌봄행위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돌봄행위는 주로 몸의 편안과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돌봄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가족, 친척, 지역 집단을 통하여 이루어진 노인의 돌봄행위에 있어서도 그 의미는 다소 달랐다. 그러나 노인 돌봄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지역집단 등 다양한 조직망이 존재할 때 노인의 다양한 형태의 요구가 더욱 잘 충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돌봄에 있어서 나타난 원리는 집단성, 호혜성, 조화성이었다. 이 세 원리는 제 각각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작용할 때 더 좋은 돌봄이 제공된다.

본 연구의 간호에의 의의를 살펴보면, 연구 측면에서 노인 돌봄담당자에 대한 앞으로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더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론 측면에서 문화에 따른 노인의 돌봄담당자의 유형과 특성, 노인의 돌봄담당자에 대한 기대 및 요구, 노인에게 바람직한 돌봄행위 유형 및 노인 돌봄의 원리 등을 파악하였기로, 노인 돌봄에 대한 지식 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실무 측면에서 노인 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돌봄담당자의 범주와 각 돌봄담당자에 대한 노인의 기대 및 노인에게 좋은 돌봄행위의 유형을 알고 간호계획 및 수행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고성희, 최영희, 조명옥, 강신표(1990). 문화간호를 위한 한국인의 민간 돌봄에 대한 연구: 출생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20권 3호, 430-458.
- 김광익(1982). 중국대륙의 한인사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4권 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1-116.
- 김광익(1984). 중국의 한인사회와 문화: 소수민족정책과 사회적 조건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의 사회와 문화*, 한국국제문화협회, 35-76.
- 김병호(1991). 중국조선족의 인구분포특점. *민족단결*, 3호, 12-14.
- 김숙련, 김영림, 채영준(1991). *중국 연변*. 김영사.
- 김주희(1983). *현대사회와 전통문화: 한국전통사회에 있어서의 이차집단의 성격*. 한국문화인류학, 15집, 29-41.
- 김주희(1992).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 집문당.
- 전경수(1989). *중국동북의 조선족: 민족지적 개황*.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1권 2호, 183-370.
- 전산초, 최영희(1985). *노인간호학*. 수문사.
-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집필소조(1983).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연변인민출판사. 이 책은 「중국의 우리민족」(한울, 1988)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거의 내용적인 수정없이 출판되었음.
- 최영희, 고성희, 강신표(1992). 문화간호를 위한 한국인의 민간돌봄에 대한 연구: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최영희 외, *간호와 한국문화*, 수문사, 445-555.
- 최재석(1982).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한상복, 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Ariga, K(1956). Introduction to the family system in Japan, China and Korea. *Transactions of the Third World Conference of Sociology*, Vol 4, London.

Study on Folk Caring for the Elderly - Focus on Korean minority Yanbian, China-

Ko, Sung Hee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School,
Chonbuk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aregivers of the elderly, the pattern of the caregivers' caring behaviors, and the cultural principles of patterns of caring behaviors practiced in a Korean minority community, Yanbian.

To clarify these, an ethnographic approach was used. The fieldwork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ug. 24, 1993 to May 20, 1994. The informants were 16 natives, age 60 or more, who were members of a large family of three genera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caregivers for the elderly were family, kinship and community groups. Family caregivers for the elderly were spouses, sons, daughters-in-law, grandchildren, sons of former wives, sons of former husbands, adopted sons, daughters and sons-in-law. The elderly had caregivers who were part of the kinship group. Three community groups provided care for the elderly. The three community groups were Dokbozo, a formal large organization for the elderly, the same age group as an informal small meeting for the elderly, and other community younger grou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family caregivers, especially spouses and sons, are the significant others of the elderly, and community groups are better caring groups than kinship relatives.

This study identified forty-three different kind of caring behaviors. They were divided into fifteen behavior patterns. These patterns integrated into five categories : soo-bal(수발), protecting, respect, support, jung(情). For physical comfort, soo-bal and protecting were conducted. For the comfort of mind, respect, support, and jung were conducted. The comfort of mind are better than physical comfort for the elderly. Cultural principles of caring behaviors were group membership, reciprocity, and harmony. But there was no hierarchy principle. And these three principles provide best caring together at the same time.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data for nursing research, theory and practice.